

4) 4월

우리나라의 본래 세시는 홀수달은 양(陽)달이라 하여 둘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니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을 쇠고 짝수달은 음(陰)달이라 하여 그달 보름을 절일로 삼는다. 그러나 4월은 보름의 절일의식이 없어지고 대개 석가탄신일인 초파일을 크게 생각한다.

『고려사』에 따르면 연등 행사는 정월 보름에 하던 것을 고려 고종 때 권신 최이가 초파일로 옮겼다고 한다. 초파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절에 찾아가 등을 단다. 등의 이름에는 수박등, 연꽃등, 마을등, 칠성등, 오행등, 일월등, 공등, 배등, 종등, 북등, 누각등, 난간등, 화분등, 가마등, 머루등, 병등, 향아리등, 방울등, 자라등, 수복등, 태평등, 만세등, 남산등이 있다. 초파일의 연등회는 오늘날에도 성대하게 벌어지는 의식이다. 주로 아녀자들이 집안 식구들의 무병과 성공을 염원하는 일이 많으며, 기사(祈事)를 하기도 하는 등 일련의 모든 것을 통틀어 ‘공들인다’고 한다.

절에서는 이날 탑돌이를 한다. 제각기 소원을 속으로 되뇌이면서 범음에 맞춰 탑을 돈다. 탑돌이를 할 때 주로 범종, 고, 운판, 목어의 사법 악기가 사용되나 때로는 삼현육각이 등장하기도 하여 순수한 불교의식이 민속의식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몇십 년 전에는 절에서만 아니라 서당에서도 등을 달았다고 한다. 서당 앞에 긴 장대를 세우고 등을 달아 서당의 처마 밑까지 줄을 이어서 각자 학동의 등을 달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뜻으로 등을 달기도 했으며, 배를 가진 사람은 배에 등을 달거나 햇불을 피워 풍어를 빌었다고 한다.